

치 사

동국대학교는 천년하고도 더 오래된 전통을 계승하여 중도 혜안을 갖추신 선각의 스님들께서 국가의 장래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의 뜻과 삼보의 정재를 모아 창립한 매우 자주적이고 의미 깊은 민족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법대중의 뜻을 모은 선대의 공덕으로 건학 108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학교가 ‘건학 108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108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국대가 건학108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변화와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대의 미래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동국대를 통해 배출된 훌륭한 불자 인재들은 사회 각계에서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불국정토를 구현하여 온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단과 불자들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동국 발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가, 여러분의 동참이 동국대의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불사의 원만회향과 우리 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월력의 실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사장 정련스님과 김희옥 총장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동국대의 미래에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어 항상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